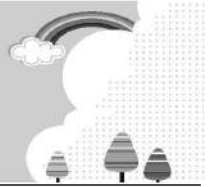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내 꿈은 미래진행형

김○명 / 부○국○외국어고등학교

얼마 전 학교 진로시간 과제로 반 친구들과 팀을 이뤄서 '진로신문'을 제작했다. 방학 중 하는 팀별 과제여서 자주 모여서 작업하기가 힘들었지만, 각자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신문 기사의 전체적인 틀을 정해서 4명의 파트를 나누고 자료조사, 기사작성, 편집 등 8면의 신문을 제작하는데도 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진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고,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달라서 서로에게 진로 정보 제공 등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신문 전체 편집을 맡았기 때문에 4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조금 힘은 들었지만, 열린 사고와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프린트된 신문을 보고 있자니, 내가 마치 신문사 편집장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뿌듯하고 감동스러웠다.

내 어릴 적 꿈은 '수의사'였다. 의사이셨던 할아버지와 고모의 영향도 있었고, 한창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각종 애완동물에 푹 빠져있던 때여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다행히 나는 수학적 능력이 제법 뛰어났고, 과학에도 흥미가 있어서 초등학교 시절 내내 지역 교육청 영재원에서 수학과 과학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 호기심은 내가 진득하니 책상에 앉아서 수학, 과학 문제들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고, '세프', '파티시에'라는 새롭고 재미있어 보이는 직업을 발견하면서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있었으나 수학, 과학을 깊고 끈질기게 탐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었던 것이다.

요즈음 나에게 꿈에 대해 질문하면, '문화 콘텐츠 디자이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화, 그림, 음악, 패션 등 문화 영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활동하는 것이 특기이자 취미인데, 꿈을 정하는 데 있어 하나만 정하기가 힘들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단순히 제작만 하는 역할이 아닌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디자이너'로서 프로젝트 전체를 내가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꿈은 고정된 것이 아닌 미래 진행형이라고도 덧붙인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성년이 되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 다른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80년이나 남은 시간 동안 할 일을 지금 정확하게 정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나에게 여전히 세상은 넓고, 해보고 싶은 일은 많다. 그래서 내 꿈은 미래 진행형이다.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딸에게

문○영

엄마의 자랑이었던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꿈이 없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당황스러웠단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지역을 함께 여행했고, 학년에 맞는 계획을 세워 박물관, 미술관 등 다채롭고 알찬 체험학습도 나를 열심히 지원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꿈꾸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한 네게서 꿈이 없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처음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지고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구나. 애꿎은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일찌감치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만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아빠와 진지하게 의논을 하기도 했었던단다.

돌이켜보니 사랑하는 너를 위해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과학관과 박물관, 미술관 수업을 신청했는데 정작 그 속에 너의 관심과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런 것이 너의 인생에, 진로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엄마의 시각, 엄마의 주도로 이끌어 온 너의 삶에 네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알아보고 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딸아,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늦게 시든다는 사실은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진가는 힘든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말일 거야.

엄마는 우리 딸 ○현이가 지금은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고 꿈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 내면 더욱 더 발전되고 성숙한 네가 될 거라고 믿는단다. 조금하게 ‘꿈’을 억지로 생각해내서 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읽고 느끼면서 그중에서 자신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한다면 스스로 진로를 찾아나가는 큰 여정에 들어서게 될 거라 생각해.

하나의 작은 씨앗이 꽃과 열매를 피우기까지 따사로운 햇빛과 넉넉하게 품어주는 흙과 시원한 물, 바람 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엄마는 네가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며 성장해 나갈 때 늘 옆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단다. 엄마의 생각과 주관대로 엄마보다 더 큰 너를 재단하고 묶어두려고 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며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너를 기다려주는 것이 엄마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

사랑하는 딸아, 10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진로에 있어서도 사춘기 단계에 있는 것 같구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세상을 탐색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진로 사춘기 말이야. 번데기 과정을 거쳐 화려하게 변신하는 나비처럼, 답답하고 고민 가득한 진로 사춘기 과정을 거치고 새롭고 아름다운 비상을 꿈꾸는 우리 ○현이의 미래를 엄마가 응원하마. 사랑한다, 우리 딸!!